

조선어 대통사 오다이쿠고로(小田幾五郎) 편 「호설(虎說)」

—일본의 조선어학서에 미친 그 영향—

기시다 후미다카(岸田文隆, KISHIDA Fumitaka), 오사카대학(大阪大学)

【요지】

에도(江戸)시대에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를 담당했던 쓰시마번(對馬藩)은 조선어통사를 두고 그 실무에 임하게 했다. 에도시대 초기의 조선어통사들은 거의 한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18세기에 이르러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조선어통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텍스트를 이용한 조선어 교육으로 이행한 후에는 한글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어학력도 에도 말기, 메이지(明治) 초기에 이르기까지 쇠퇴하지 않았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활약한 쓰시마번의 조선어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도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의 결실 중 하나이다. 오다 이쿠고로는 1811년의 조선통신사 역지행빙(易地行聘) 교섭을 담당하는 등 통사로서 활약하였으며, 「강화(講話)」 등 조선어학서와 「통역수작(通訳酬酢)」, 「상서기문(象胥記聞)」 등 조선 사정에 관한 책을 많이 편찬하였다. 이 특강에서는 그러한 책들 중에서 최근에 공개된 「호설(虎說)」이라는 책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 책은 오다 이쿠고로가 오랫동안 조선어통사 근무를 하면서 들은 조선의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으로서 1810년 초여름에 초량왜관(草梁倭館)에서 편찬된 것인데, 이후 조선어통사들에게 많이 읽혔던 것으로 보이며, 에도후기에서 메이지초에 성립된 조선어학서(「표민대화(漂民對話)」, 「복문록(復文錄)」)에는 이 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문이 나타난다.

차례:

1. 에도시대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사와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 한글 독해능력의 획득
2. 에도 후기 쓰시마번 조선어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와 그의 저작물
3. 오다 이쿠고로 편 「호설(虎說)」 과 그 영향

1. 에도시대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사와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 한글 독해능력의 획득

에도시대(1603년~1868년)에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를 담당했던 쓰시마번에서는 의사·정보 전달을 위하여 조선어 통사가 필요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쓰시마번 차원에서 특별한 체계적 통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조 무역을 담당한 '60인(六十人)' 상인들이 그 가업의 필요상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무역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60인' 상인들의 조선어

학습 동기가 낮아졌고, 그 자녀들이 예전처럼 조선어를 배우려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 왜관에서 고관, 즉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 시절에는 왜관 주변 조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조선어 습득에도 유리하였으나, 1678년 왜관이 초량(草梁)으로 이전한 후에는 주변 조선인들과의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왜관의 조선어 통사 능력은 낮아졌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어학서를 편찬함과 동시에 쓰시마번에 건의하여 조선어 통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60인' 상인들의 집 안에서의 조선어 교육에서 쓰시마번 차원에서의 통사 양성으로의 이 개혁이 효과를 보이면서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사들의 조선어 능력은 유지되어 에도시대 말기, 메이지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쇠퇴하지 않았다. 아메노모리 호슈의 이 교육개혁에서 특기할 것은 어학 텍스트를 이용한 조선어교육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쓰시마의 조선어통사들이 한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과 조선 간의 문서 전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한글 문서 전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1689년에 스승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추천을 받아 쓰시마번 소케(宗家)에 유학자로서 고용되었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부임하기 전의 쓰시마의 조선어학서는 전해진 것이 거의 없으며, 인토쿠키(陰徳記) 「고마고토바노 고토(高麗詞之事)」¹⁾와 같이 쓰시마의 조선어 통사가 관여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본 가나로 표기된 조선어 자료가 몇 개 남아 있을 뿐이다. 쓰시마의 조선어학서는 아메노모리 호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메노모리 호슈가 편찬한 조선어학서에는 「교린수지(交隣須知)」나 「전일도인(全一道人)」 등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 「전일도인(全一道人)」(1729) 서문에 「우리 대마주 사람은 대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에 뜻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책도 없고 또 그 가르침도 없으니 그저 망양지탄(望洋之歎)을 품을 뿐이다. 여기에 4부의 책을 골라서, 처음에 「운략언문(韻略諺文)」을 읽고 자훈을 알고, 다음에 「수작아언(酬酌雅言)」을 읽고 단어(短語)를 알고, 다음에 「전일도인(全一道人)」을 읽고, 그 마음을 양성하고, 다음에 「제구의완(鞮履衣椀)」을 읽고, 그 일을 완수시킨다. 원컨대 그 가르침의 절차를 준비하였으니 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까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我州の人およそ公事に役するもの、たれか韓語

1) 야마구치현(山口県) 공문서관(公文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 에도시대 초기의 수오노쿠니(周防国) 이와쿠니료(岩国領) 가로(家老)였던 가가와 마사노리(香川正矩, 1613-1660)이 편찬한 군기(軍記) 이야기 「인토쿠키(陰徳記)」의 제76권에 수록되는 「고마고토바노 고토(高麗詞之事)」는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때에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선어 소회화집이라고도 할 만한 기록이지만, 당시 조선어 어휘 및 단문이 일본의 가나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志部昭平(1988)에 본문 영인파 상세한 해설이 있다.

に志なからん。しかし、其書もなく、また其教もなければ、たゞに望洋之歎をいただけるのみ。こゝに四部の書をゑらび、はじめに韻略諺文をよみて字訓をしり、次に酬酌雅言をよみて短語をしり、次に全一道人をよみて其心をやしなひ、次に鞆履衣椀をよみて其用を達せしむ。こゝねがわくは、其教の次第ありて、其材をなすにちかからんとしかゆふ。)」라고 하며, 「운략언문(韻略諺文)」 「수작아언(酬酌雅言)」 「전일도인(全一道人)」 「제구의완(鞆履衣椀)」 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창하고 있는데, 그러한 텍스트를 이용한 어학교육은 아메노모리 호슈가 구축한 것이다. 그는 이들 어학서를 편찬하는 한편 쓰시마번에 건의하여 조선어 통사 양성 제도도 구축하였다. 즉, 1720년에 「간가쿠세이인닌요초(韓學生員任用帳)」²⁾, 1727년에 「고도바게이코노모노 시타데기로쿠(詞稽古之者仕立記録)」³⁾를 쓰시마번에 제출하여 통사 양성 제도를 정비하도록 건의하였다.

아메노모리 호슈의 개혁으로 인한 쓰시마의 조선어학의 가장 큰 변화는 텍스트를 사용한 교육을 통하여 조선어 통사들이 한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메노모리 호슈 이전의 쓰시마의 조선어 통사들은 놀랍게도 거의 모두가 한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한다⁴⁾. 「간가쿠세이인닌요초(韓學生員任用帳)」에

「한글을 아는 조선어를 잘하는 사람은 3명이며, (중략) 지금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마쓰곤자에몽(小松権右衛門), 나카가와키치에몬(中川吉右衛門), 모리타벤키치(森田弁吉), 이 세 명입니다.
(諺文を存候朝鮮言葉巧者三人、(中略) 只今諺文を存居候者ハ、小松権右衛門・中川吉右衛門・森田弁吉、是三人ニ而御座候)」

라고 하며, 1720년 당시 한글을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측에서 조선측으로 문서를 보낼 때는 예조(禮曹)나 동래부사(東萊府使) 앞이 아니라 설사 왜학역관(倭學訳官) 훈도(訓導) 앞이라 하더라도 (일문이 아니면)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문서를 작성했던 것 같다. 1696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와칸기로쿠(倭館記録)·신시 오요비 야간 헤이몬노 시다이(信使并訳官聘問之次第) (仮題)」⁵⁾에는 일본측 왜관관수(倭館館守)가 조선측 훈도(訓導)에게 보내는 한문 서한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2) 泉澄一・中村幸彦・水田紀久編(1982)에 수록되었음.

3) 泉澄一・中村幸彦・水田紀久編(1982)에 수록되었음.

4) 田代和生(2007), p.183.

5) 나가사키현 쓰시마 역사연구센터(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 소장 [目録卷2, 記録類2, 朝鮮関係R5]. 1 책, 사본, 모두 11장. 외제(外題)는 없다. 표지 오른쪽 위에 붉은 색 화압인(花押印)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전각(篆刻)으로 「簡牘」이라느 붉은 색 도장이 찍혀져 있다. 이 책의 성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본서에 수록된 「신시 나라비니 야간헤이몬노 시다이(信使并訳官聘問之次第)」에 나열된 통신사 및 역관사 연대가 원록(元祿) 9년(1696)까지이므로 1696년 이후에 성립된 것이 분명하며 아마도 1696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金文姬(2017) 참조.

「倭館記録・信使并訳官聘問之次第（仮題）」에 수록된 訓導 앞 漢文書簡

【和文】

一 对州より送使指越候節は 東萊釜山御拵被成候て 宴席接待被成候儀は 先規御座候処 近来至候ては 東萊御事 毎度御病氣の由にて御出席無之候 兩國誠信の交御座候は 少〃 御病氣御座候ても御出席被成候義 他國の使を對せられ候段申に不及 其元朝廷の御意にも 御叶可被成と存■■や 朝廷より对州の送使僉末御取捌候様とは被仰付有之間布候 其上御 実病御座候は 御役目御交替を御頼可被成事に候 御頼も無之 御役御務被成候上は 御 病氣と申義 何とも難得其意候 殊此程東萊よりの小商人參候故 相尋候処に 何日に東萊 鷹狩御出被成候段 承申候 下〃の申分御座候は 信用難致候へとも 万一左様候ては 甚 以不聞御事と存候 此段東萊へ

被申遣 向後宴席へも御出有之候様可申入候

訓導某公

館守

【漢文】

東釜僉公兩國幹事之人 而其要在俾彼此之間仗信惇交無緯■■之弊爾 而我使往貴國宴亨之日 兩公出叅叙其懇懃固在規例所由尚矣 今者萊府托病不出十常八九 謂之待客有禮可乎 謂之 交臨有信可乎 窃推事體實非貴國待我之至意也明矣 抑不知貴朝廷特令貴府蔑視我使不■■若 人耶 夫陽施誠信陰挾欺罔乃蕞爾小國猶所不爲 況貴國以知禮義之邦 豈有如斯詭譎之舉也哉 萬〃無此理也 若夫萊府病患孔劇不能蒞事則辭■■代謝而可也 古之人一日在位盡一日之職 病不視事則 有謝位之典令貴府在位稱病未知果合禮也否 頃日貴府商人入館說道某月某日府 使郊外游獵 彼商蠹〃無知之言固不足信 雖然果如彼所說不啼待 接之禮有所來至恕亦於其 敬君之事 使不厚至敬其君亦不爲炎實未安之爲也 此等理[辭緣]詳票貴府前每宴接見以爲彼 此罄歡之地如何〃〃

(쓰시마에서 송사(送使)가 왔을 때 동래부사(東萊府使)와 부산첨사(釜山僉使)가 주관하여 연석 접대를 하신다는 것은 예전부터의 규칙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동래부사는 매번 병 환이라고 하여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양국 성신(誠信)의 교분이라면 조금 아프시더라도 참석하신다는 것은 타국 사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 조정의 뜻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에서 대마도 송사를 소홀히 다루라는 분부를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병환이 있는 것 같으면, 임무 교체를 부탁하셔야 할 일입니다. 부탁도 아니 하시고, 임무를 맡으신 이상, 병환이라니 뭐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래에서 온 소상인이 왔기에 물어보니 며칠에 동래부사는 매사냥을 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천민의 말이기 때문에 신용은 할 수 없습니다만, 만일 그 말이 맞다면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시고 앞으로는 연석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도 아무 공계

관수)

동래부사(東萊府使)는 병이라 칭하며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데, 얼마 전 입관한 상인의 말로는 동래부사가 매사냥을 갔다고 한다. 천민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믿을 만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연회에 참석할 것을 동래부사에게 건의해 달라는 내용인데, 왜학역관 훈도에게까지 한문으로 서한을 보냈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물론 조선측 왜학역관의 한문 능력은 근세 말기에 이르기까지 전혀 쇠퇴하지 않았으므로 수신자 측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겠지만, 일본 측이 국서(國書)나 서계(書契) 등 정식 외교 문서가 아닌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서한을 한문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일본측에도 동향사승(東向寺僧)이나 진문역(真文役), 아메노모리 호슈 등의 유학자와 같은 한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위의 한문 서한은 왜관관수(倭館館守)가 보낸 것이므로 그 작성에는 그 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조선측과 접하는, 더 낮은 신분인 대관이나 통사들은 한문을 잘 하지 못했다. 일대관(一代官) 요시노 고로시치(吉野五良七) 「동래접대기(東萊接待記)」⁶⁾는 1702년에 일대관 요시노 고로시치가 동래부사(東萊府使) 박태항(朴泰恒)을 접대한 전말을 기록한 것인데, 5월 2일 접대장에서 동래부사가 한문 서부(書付)를 일대관에게 보여주었더니, 일대관은 자신은 문맹이므로 읽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⁷⁾.

그러므로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쓰시마의 조선어통사가 한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한글을 사용한 문서왕복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일본과 조선 간의 왕복 한글문서를 구체적으로 부감하면서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 이후 한글을 사용한 문서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근년에 그 동안 미정리 상태였던 대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歷史民俗資料館)⁸⁾ 종가문서(宗家文書) 일지물(一紙物) 자료가 정리·공개되어⁹⁾, 총 112통에 달하는 일본과 조선 간의 왕복 한글 서한류가 발견되었다¹⁰⁾. 이들 한글문서는 1760년부터 1831년까지 일본과 조선 간에 왕복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은 쓰시마번 조선어대통사 오다 이쿠고로가 1811년의 조선통신사 역지행빙(易地行聘) 교섭의 준비과정에서 주고 받은 서한류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조선 간의 왕복 한글문서는 대마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된 것 이외에도 전해진 것들이 몇 개 있으며, 아래에 제시하듯이 현물 혹은 기록류나 어학서

6) 나가사키현 쓰시마 역사연구센터(長崎県對馬歷史研究センター) 소장 [目録卷2, 記録類2, 朝鮮關係G1], 1책, 사본.

7) 「府使此時硯を乞 直筆にて 請見頗切雖免暫面私觀非礼後勿為例 と如此書載 別差被相渡候へは 我等前に持參候故 拙者儀取分け文盲に候て読分けたく候由 返答にて 其俣膝の下に差置(부사께서 이때 버루를 청하여 친필로 「청견과절수면잠면사적비례후물위례(請見頗切雖免暫面私觀非礼後勿為例)」라고 이렇게 써서 별차에게 주니 별차는 우리 앞에 가져왔다. 그래서 저는 유난히 문맹이라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무릎 밑에 놓았다.)」

8) 현재의 나가사키현 대마역사연구센터(長崎県對馬歷史研究センター).

9) 對馬歷史民俗資料館編(2009), 對馬歷史民俗資料館編(2012).

10) 岸田文隆(2014), 對馬歷史民俗資料館編(2015), 岸田文隆(2015a), 岸田文隆(2015b), 岸田文隆(2016), 松原孝俊·他(2018).

등 2차 자료에 수록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¹¹⁾.

[01] 「朝鮮人拾壹人慶良間島漂着馬艦船を以唐え送越候日記」 所収書付 1 通
東京大学法学部法制史資料室所蔵琉球評定所記録[1770], 沖繩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
(1987)p.31, 게라마도(慶良間島)에 표착한 조선인이 1723년 12월 1일에 제출한 한글 문서를
수록하였음.

[02] 「韓牘集要」 所収書簡69通
京都大学文学部所蔵, 사쓰마(薩摩)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 전해진 조선어학서의 하나, 1732
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¹²⁾.

[03] 「東館修理記録」 所収書付 2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799], 1750년 3월 20일 조에 감동관(監董官) 君聲崔鶴齡이 제출
한 한글 문서를 수록하였음.

[04] 多田主計 「裁判記録」 卷 5 所収書付 4 通
日本国会図書館所蔵[WA1-6-14],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974], 1751년 윤(閏) 5월22일에
훈도(訓導) 玄僉知, 별차(別差) 黄判官이 제출한 문서, 1753년 4월 28일에 훈도(訓導) 朴同知,
별차(別差) 朴判官이 제출한 문서, 같은 해 5월에 훈도(訓導) 朴同知, 별차(別差) 朴正
이 제출한 문서, 같은 해 6월에 상역(商訳) 즉 도중(都中)이 제출한 문서를 수록하였음.

[05] 「分類紀事大綱」 所収書付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33], 1753년 6월 7일에 상역(商訳) 즉 도중(都中)들이 제출한 문
서를 수록하였음. 위의 [04]에 수록된 4번째 문서와 같은 것임.

[06] 吉村橋左衛門 「裁判記録」 卷 5 所収書付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879], 1760년 4월 17일에 훈도(訓導) 崔僉正(崔寿仁(大来))과 별차
(別差) 李僉正(李命和(聖欽))이 사이한(裁判) 요시무라 기쓰자에몬(吉村橋左衛門)에게 제출한
한글 문서 1통을 수록하였음.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 및 松原孝俊·他(2018)의 参考1, 参
考2와 같은 내용이다.

[07] 「朝鮮人十人国頭間切安田村え漂着に付送届候日記」 所収書付 1 通
東京大学法学部法制史資料室所蔵琉球評定所記録[800], 沖繩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
(1987)p.158, 구니가미마기리(国頭間切) 아다무라(安田村)에 표착한 全羅道江津 출신 조선인이

11) 아래 목록에서는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 및 松原孝俊·他(2018)에 수록된 총 112통의 일지물(一紙物)
사료 한글문서 및 거기서 언급된 기록류(記録類) 등에 수록된 관련 한글문서는 생략한다. 또한 부산 시민 도
서관 고문헌실의 근대 한일 외교 자료에도 「한국 왕복 서류(韓国往復書類)」 등 많은 메이지시대 초기 한글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생략한다. 또한 에도시대 후기 조선어통사로 유명한 오다이쿠
고로의 후손인 오우라케(大浦家)의 쓰시마카기야레키시칸(対馬鍵屋歴史館)에도 「서장집(書簡輯)」 「서장록(書
狀録)」 「편지집(片紙集)」 「서장집(書狀集)」이라는 한글서한집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허
지은(2012)pp.98-101),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12) 岸田文隆(2009), 岸田文隆(2010), 金文姬(2018) 참조.

1794년 2월 2일에 제출한 문서를 수록하였음. 단 그 한글 표기는 틀린 데가 많아서 해독할 수가 없다.

[08] 「朝鮮於和館御用ノ向応対始終之覚書」 所収書簡 1 通

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蔵[目録巻 2, 記録類 2, 朝鮮関係Q56], 1796년 7월 26일에 朴致儉(景和)가 보낸 서한을 수록하였음.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 및 松原孝俊・他(2018)의 史料10에 이어지는 편지이다.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서한 원본으로 보인다.

[09] 「朝鮮関係覚書綴」 所収書付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149], 1804년 12월에 훈도(訓導) 陽元玄判官과 별차(別差) 敬天玄主簿가 제출한 문서를 수록하였음.

[10] 文化 「信使記録」 所収書付 1 通

慶應義塾所蔵[93-1-58, 慶応冊子番号26, 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필름慶應本第50 巻], 1807년 10월에 훈도(訓導) 敬天玄同知와 별차(別差) 明遠崔判官이 히사미쓰 이치지로(久光市次郎)에게 보낸 한글 문저 1통을 수록하였음.

[11] 文化 「信使記録」 所収書付 1 通

慶應義塾所蔵[93-2-40, 慶応冊子番号4, 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필름慶應本第56 巻], 1807년 10월에 훈도(訓導) 敬天玄同知와 별차(別差) 明遠崔判官이 히사미쓰 이치지로(久光市次郎)에게 보낸 한글 문저 1통을 수록하였음. 위의 [10]에 수록된 것과 같은 것임.

[12] 文化 「信使記録」 所収書付 1 通

慶應義塾所蔵[93-2-40, 慶応冊子番号17, ゆまに書房朝鮮通信使記録マイクロ필름慶應本第59 巻], 1807년 10월에 훈도(訓導) 敬天玄同知와 별차(別差) 明遠崔判官이 히사미쓰 이치지로(久光市次郎)에게 보낸 한글 문저 1통을 수록하였음. 위의 [10]에 수록된 것과 같은 것임.

[13] 「分類紀事大綱」 所収書付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89], 1832년 11월월에 大通官(大通詞) 수미나가 게이수케(住永恵介)가 구훈도(旧訓導) 維清朴知事에게 보낸 한글 문서 1통을 수록하였음.

[14] 榎田駿編 「朝鮮聞見録」 所収書簡 1 通

福岡市博物館・福岡県立図書館所蔵, 1833년 11월 15일에 崔乃維, 鄭子建이 조선어통사 쓰키치젠에몬(津吉善右衛門)에게 보낸 서한 1통을 수록하였음.

[15] 「兩訳より差出候書面并和解写」 所収書付 2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6169], 1836년 11월 15일에 훈도(訓導) 聖五李同知와 별차(別差) 子述玄僉知가 제출한 문서, 훈도의 실형(実兄)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을 수록하였음.

[16] 「兩訳より差出候書面写并和解」 所収書付 2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6124], 1836년 11월 15일에 훈도(訓導) 聖五李同知와 별차(別差)

子述玄僉知가 제출한 문서, 훈도의 실형(實兄)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을 수록하였음. 위의 [15]에 수록된 것과 같은 것임.

[17] 「分類紀事大綱」 所収書付 2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585], 1836년 11월 15일에 훈도(訓導) 聖五李同知와 별차(別差) 子述玄僉知가 제출한 문서, 훈도의 실형(實兄)이 보내온 편지의 사본을 수록하였음. 위의 [15]에 수록된 것과 같은 것임.

[18] 对馬宗家文書古文書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5804], 1837년 9월에 구훈도(旧訓導) 仲元朴僉知와 별차(別差) 伯綏崔主簿가 제출한 문서.

[19] 对馬宗家文書古文書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1702], 신유(辛酉, 1861?)년 12월 5일에 훈도(訓導)가 제출한 서한의 별록(別錄).

[20] 对馬宗家文書古文書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6483], 신유(辛酉, 1861?)년 12월 19일에 子儀鄭千摠과 致伯鄭把摠이 제출한 서한.

[21] 对馬宗家文書古文書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7431], 계해(癸亥, 1863?)년 7월 4일에 선주(船主) 채진보와 사공 고운경이 제출한 문서.

[22] 对馬宗家文書古文書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7060], 1864년 3월에 선주(船主) 張白雲이 제출한 한글 상서(上書), 또한 国史編纂委員会所蔵[古文書8648]이 이 한글 상서의 일본어 번역문임.

[23] 「萊府返答の趣任訳より印書にて差出候写」 所収書付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984], 1866년 2월에 훈도(訓導) 学一李主簿와 별차(別差) 景文李主簿가 일대관(一代官) 후지모리미치(藤守道)에게 제출한 문서를 수록하였음. 표지에는 후대 사람이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이는 「문화삼년병인(文化三年丙寅)」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ゆまに書房의 朝鮮通信使記録마이크로 필름国編本第43필에도 문화신사기록(文化信使記録)으로서 수록되어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 1806년(文化3년)이 아니라 1866년이 맞다.

[24] 「示談書」 所収書簡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6464], 1870년 7월 5일에 幹伝官이 훈도(訓導)에게 보낸 서한을 수록하였음.

[25] 渡辺小右衛門 「年限裁判記録」 所収書付 1 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1972], 1871년 1월 18일에 별차(別差) 景五玄主簿에게 준 문서를

수록하였음.

[26] 「申舍」所収書付1通

国史編纂委員会所蔵[記録類4815], 1871년 4월 15일에 훈도(訓導) 보내온 한글 서한 1통을 수록하였음.

[27]浦瀬裕의 한글 書簡

岡山県立記録資料館所蔵[花房端連・義質關係資料 A00005-000440], 연대 미상, 本使隨員陸軍省十三等出仕 士官 시모무라 슈수케(下村修介)가 초향(草梁) 공관(公館) 滯泊中에 병에 걸려서 수행(隨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임.

위의 일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조선 간의 왕복 한글문서는 에도 초기에는 찾아볼 수 없고 18세기 초중엽 이후에 출현하게 된다. 이 일람 중 표류민이 쓴 [01][07][21][22]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류민들이 한글 이외의 서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학역관 등이 발급한 기타 한글문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기적인 분포 경향을 보여주는 배경에는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쓰시마의 조선어통사들이 한글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일조건 외교의 실무 차원에서 한글을 사용한 문서 왕복의 길이 열렸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2. 에도 후기 쓰시마번 조선어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와 그의 저작물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활약한 쓰시마번의 조선어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도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육개혁의 결실 중 하나이다. 오다 이쿠고로는 1754년 생, 1831년 몰. 아명을 고로하치(五郎八)라 하고, 1767년에는 부산 왜관에서 조선어 공부에 힘썼으며, 1774년에는 고토바게이코고멘사쓰(詞稽古御免札)를 인정받아 번 공인 어학생이 되었다. 1776년에 고닌쓰지(五人通詞), 1779년에 게이코쓰지(稽古通詞), 1789년에 혼쓰지(本通詞), 1795년에는 최고위인 오쓰지(大通詞), 즉 대통사로 승진하였다. 1803년에는 대도(帶刀)를 허용받았다. 1823년에 대통사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토바게이코시난가나라(詞稽古指南頭)로서 후진 지도를 하였다. 문화(文化) 8년(1811)에 실현된 조선통신사 역지행빙(易地行聘) 교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였고, 「강화(講話)」 등 조선어학서를 편찬하였으며, 「통역수작(通訳酬酢)」 「상서기문(象胥紀聞)」 등 조선사정에 관한 수많은 저작을 남겼다¹³⁾.

그런데 오다 이쿠고로가 편집한 저작물 혹은 필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

13) 酒井雅代(2015), 酒井雅代(2021) 참조.

근 오다이쿠고로의 후손인 오우라케(大浦家)에 전해진 장서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오우라케(大浦家)의 쓰시마카기야레키시칸(対馬鍵屋歴史館)¹⁴⁾에는 수많은 귀중한 에도기 쓰시마의 조선어학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종래 서명만이 전해질 뿐, 다른 곳에 전본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나 서명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도 있다. 여기에는 이들 중 한글서한집인 「서간집(書簡輯)」 「서장록(書狀錄)」 「서장집(書狀集)」 「편지집(片紙集)」 을 들어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부산 왜관에 체류하던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사가 조선의 왜학 역관들과 주고 받은 한글 서한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1) 「서간집(書簡輯)」

기존에 서명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책이다. 「평윤송사(平胤送使)」 다례(茶礼) 날짜에 관한 문장이 나타나는데, 조선에서 쓰시마로 보내는 문서의 수신인명 등에서 「평의진(平義眞)」 을 그만두고 「평윤(平胤)」 으로 바꾼 것은 1721년 이후의 일이므로 대체로 그 무렵의 서한을 모은 것으로 추측된다.

2) 「서장록(書狀錄)」

「서장록(書狀錄)」 은 芳洲書院藏 「宗家事件並朝鮮向尋 返答書」 에 아메노모리 호슈의 저작물로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 전본이 없다. 본관 소장 사본은 1856년 8월에 필사된 것으로 후대에 옮겨 쓴 것이지만 천하의 고본으로서 특기할 만하다. 이 책은 이름 그대로 한글 서한을 모은 것인데, 그 첫 번째 서한문 중에 「계심현판사(季深玄判事)」 라는 인물명이 나타난다. 이는 18세기 초·중엽에 활약한 조선의 왜학역관 현덕연(玄德淵)을 가리키는 것이며, 아메노모리 호슈와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현덕윤(玄德潤)의 동생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본 사본의 조본이 아메노모리 호슈가 저술한 「서장록(書狀錄)」 으로 보아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3) 「서장집(書狀集)」

1801년에 오다 이쿠고로 자신이 필사한 유서 깊은 사본이다. 이 책은 앞 장에서 언급한 사쓰마(薩摩)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 전래된 「한독집요(韓牘集要)」 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진 이본이다. 「한독집요」 는 사쓰마 나에시로가와에 전래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으로 보아 사쓰마 나에시로가와

14) <https://www.kagiya.co> 오우라케(大浦家)의 쓰시마카기야레키시칸(対馬鍵屋歴史館) 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규슈대학(九州大学)의 마쓰바라 다카토시(松原孝俊)·사에키 고지(佐伯弘次) 교수(당시)에 의하여 조사가 실시되어 그 조사 목록의 일부가 허지은(2012)에 게재되었으며,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考える会(2002)에서도 소장자료의 일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그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 자료를 이용한 구체적인 연구도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쓰시마에서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쓰시마에는 그 전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이번의 이 「서장집」의 출현은 「한독 집요」의 연원이 쓰시마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¹⁵⁾.

4) 「편지집(片紙集)」

이 책도 종래 그 서명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오다이쿠고로 자신이 발신자로 되어 있는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1797년 8월 29일 훈도(訓導) 華彦崔僉正과 별차(別差) 景和朴主簿가 왜관에 제출한 이국선에 관한 한문 각서에 대응하는 한글 서한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체로 1798년경 오다이쿠고로 자신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오우라케(大浦家) 쓰시마가기야레키시칸(対馬鍵屋歴史館) 소장자료는 향후 이 방면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 오다 이쿠고로 편 「호설(虎說)」 과 그 영향

앞 장에서 언급한 오우라케(大浦家) 쓰시마가기야레키시칸(対馬鍵屋歴史館)에는 오다 이쿠고로가 편집한 「호설(虎說)」이라는 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책이 일본의 조선어학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호설(虎說)」이라는 서명은 일찍이 1841년 경의 저서 「속상서기문(續象胥紀聞)」¹⁷⁾ 하권 「물명(物名)」 「금수류(禽獸類)」에,

虎 人ニ化シタル咄多シ 人ヲ喰フタルコトアルモノハ 時々人ヲ害スレトモ 人ヲ喰タルコトナキモノハ 人ヲ畏ルト云 虎說別ニ一冊アリ

(호랑이: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사람을 잡아먹은 적이 있는 놈은 가끔 사람을 해하지만, 사람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 놈은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한다. 호설(虎說)이라는 책이 따로 한 권 있다)

라고 저술되어 세인에게 알려진 바였으나, 오랫동안 그 실물을 본 사람이 없어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 쓰시마의 오우라케(大浦

15) 岸田文隆(2023a) 참조.

16) 岸田文隆(2023b) 참조.

17) 도쿄도립도서관(東京都立図書館) 소장본(特別買上文庫, 中山久四郎旧蔵資料, [特4011])에 의거함. 「속상서기문(續象胥紀聞)」은 오다 이쿠고로가 편집한 「상서기문(象胥紀聞)」의 속편이며 오다 이쿠고로의 아들인 오다 간사쿠(小田管作)가 편집한 것이다.

家)에 그 책 몇 권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¹⁸⁾, 갑자기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하 그 중에서 편자인 오다이쿠고로가 1810년에 직접 쓴 원본에 해당하는 자필본을 들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권, 사본, 글자가 적혀져 있는 장은 25장. 매 반엽의 행수는 대략 9행. 외제, 권두제 모두 「호설(虎說)」. 그 서문에,

虎說 夫諸獸多しと云へ共 猛き事虎にしかず 猛虎一声高山月と左語にも有り 危に臨ミ虎口の難を遁たると云ふ 弁慶だも安宅の関を越へて 虎の尾を踏ミ 毒蛇の口を遁たる心地と謡ふて落行しも断也 【右】予対州に生れ幼少より朝鮮国慶尚道東萊郡之内草梁和館に渡り 彼国の言語を習ひ 象胥の勤 既に数十年 彼人の参会日〃にして 公幹の臨席 虎說等を聞たる 朝鮮国 文武兩班を置き 文ハ鶴を表し 武ハ虎を表す 面り衣冠の胸背に標有り 又 軍令の主を示すに大札を出来し 表に肅清と書キ 裏に虎を画く 事有る時ハ 虎の画を表に顕し 事無き時ハ 肅清を表にすと云就 虎を貴ふ事何国も同し 西漢に五虎將軍の称名有り 人ハ死して名を留め 虎ハ死して皮を留と云ふ 是等の事を思ひ 無端存る雜和ながら 一年草の酷きも種を溢し 童子笑の一興にする而已 予も一座の伽にして虎說を評する而已

文化七 庚午 初夏 集説 小田 識 印

(호설, 여러 짐승이 많다고 해도 맹렬함에 있어서는 호랑이 만한 것이 없다. 맹호일성산월고(猛虎一声高山月)라 좌어(左語)에도 하였다. 위험에 임하여 호구의 난을 벗어났다고 한다. 벤케이(弁慶)조차도 아타카(安宅) 관을 넘어 호랑이 꼬리를 밟고 독사의 입을 벗어난 기분이라고 노래하면서 도망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는 쓰니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조선 경상도 동래군에 있는 초량화관(草梁和館)으로 건너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통사로 근무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 그 나라 사람과 참회하는 것은 매일의 일로 공무 교섭 자리에 임하여 호랑이 이야기 등을 들었다. 조선국은 문무의 양반을 두고 문과는 학, 무반은 호랑이로 표시하고 실제로 의관의 흉배에 그 표시가 있다. 또한 군대의 통솔자를 나타내는 데 큰 제찰을 가져와 앞에 숙정이라고 쓰고 뒤에 호랑이를 그리고 유사시에는 호랑이 그림을 앞세우고 평시 때는 숙정을 앞세운다고 하듯이 호랑이를 존중하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서한(西漢)에 오호장군(五虎將軍)의 칭명이 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촌스러운 잡다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년초 같은 것이라도 씨를 늘리니 나도 일좌

18) 허지은(2012)p.101,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考える会(2002)p.122 참조.

의 말동무로 호설을 평할 뿐이다.

문화 7년(1810) 경오 초여름에 이야기를 편집하여 오다(小田)가 씀. 인)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朝鮮國慶尚道東萊郡之內 草梁和館

象胥官

小田幾五郎 集編

印

이들 기재내용을 통해 이 책은 오다이쿠고로가 오랜 세월 조선어통사를 하면서 들은 조선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문화 7년(1810) 초여름에 초량왜관에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또한 본서에는 오다이쿠고로 자신의 손으로 주필로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는 서문 말미에 「문화구(文化九) 임산(壬申) 춘(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812년 봄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총 35조에 걸쳐 호랑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⁰⁾.

- 1)조선 팔도(八道)와 호랑이의 분포
- 2)호랑이는 술에 취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 3)호랑이는 개를 좋아한다
- 4)호랑이는 공용의 보행(步行)을 해치지 않는다.
- 5)호랑이가 곳곳에 나와 해칠 때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호랑이를 꿈에 꾸면 승관한다
- 6)호랑이의 위세에 놀라서 여우는 적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이 드물다
- 7)호랑이는 새끼를 낳은 골짜기 근처에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 8)호랑이는 한 배에 세 마리 새끼를 낳고, 그 중 한 마리를 시라손(是羅損)

19) 이 책이 편찬된 1810년 당시 오다 이쿠고로는 왜관에서 근신 처분을 받고 있었다. 오다 이쿠고로는 문화(文化) 8년(1811)에 실현된 조선통신사 역지행빙(易地行聘)을 준비하기 위한 외교교섭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으나 교섭이 어려워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문화 4년(1807) 11월 11일부터 문화 8년(1811) 5월 7일까지 쓰시마번으로부터 일단 담당에서 제외되어 근신 처분을 받았다. 「쓰지메시쓰카와레카타, 효민게이소마카나이, 마치다이칸, 고멘사쓰(通詞被召仕方・漂民迎送賄・町代官・御免札)」(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기록류[4499]) 및 「조센카타 오야쿠닌슈요리 우치우치 오타즈네니쓰키 모시이데(朝鮮方御役人衆より内)御尋に付申出)」(한국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기록류[5435])를 참조.

20) 이 중 1), 2), 3), 4), 8), 18), 20), 21)에 대해서는 오다 이쿠고로 편 「상서기문(象胥紀聞)」 하권의 [금수(禽獸)] 「호(虎)」 항목에도 유사한 기술 내용이 확인된다.

이라고 한다

9)호랑이의 용기(勇氣)는 오후부터 번성하여 새벽부터 쇠퇴하고 밤중에는 불이 없이 산길을 왕래하기는 위험하다

10)호랑이가 길 앞에서 오는 것은 해가 적고 뒤에서 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11)호랑이 머리를 깊은 늪에 가라앉히면 거기에 갇들어 있는 신이 비를 뿌린다

12)호랑이의 힘은 머리에 있고 앞다리가 세며 허리에서 아래에는 힘이 없다

13)호랑이는 나무에 오르지 못한다

14)호랑이와 표범이 숨어 있는 숲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모여 소리를 지른다

15)호랑이는 물건에 두려워 위험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위험한 돌을 밟지 않는다

16)호랑이가 말을 잡을 때 말에 뛰어올라 자기 꼬리로 마냥 채찍질하여 말을 지치게 한 다음에 잡아 먹는다²¹⁾.

17)호랑이는 개를 잡으면 어깨에 걸고 가서 하룻밤 사이에 남김없이 잡아먹는다

18)호랑이 잡기는 함경도 사람을 당할 수 없다. 팔꿈치에 수갑(手甲)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 잡는 방법이 있다

19)백두산 근읍 삼수(三水) 갑산(甲山) 강계(江界)에서 인삼을 채취할 때 호랑이의 위험이 많으므로 대여섯 명씩 동행하여 며칠 산에 머물고 밤에는 가족자루를 큰 나뭇가지에 걸고 그 안에 들어가 잔다

20)호랑이를 잡을 때 함정을 설치하여 잡는 방법이 있다

21)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때 아프게 물지 않고 등에 걸고 산골짜기에 들어

21) 「호설(虎說)」의 이 부분과 유사한 이야기가 「갓시야와(甲子夜話)」에 있다. 즉 그 권21-8(平凡社東洋文庫版에 의거함)에,

予が中に、対州より召かゝへたる士あり。此もの郷国にて度々朝鮮の和館に往たり。渠虎の馬をとることを語るを、人信ぜざりしが、近頃、予が隠莊に對候の馬役來りて、同じ話をなす。是より人々前言を信ぜり。虎の馬をとらんとするには、始めは馬とともに走ること數回して、夫より馬の背に乗跨る。馬懼て、走ることいよゝゝ急なり。若し馬走ること遅ければ、虎尾を以て打てこれを走らせ、遂に息きれて踏るゝに至て馬を食ふと云。猛獸にても、始よりは取食はざるものと見へたり。然るに蝦夷地にて熊の馬を取るは、始よりとび掛りて、ひしゝと馬の脚を折て、肩に負て去ると云。さあれば、熊の勇猛は虎に過たりと謂べし。

(우리 집에 쓰시마에서 고용한 무사가 있다. 이 자는 고향에 있었을 때 종종 조선 왜관에 간 적이 있다. 그가 호랑이가 말을 잡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요즘 내 은신처에 쓰시마번의 우마야쿠(馬役)가 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앞말을 믿게 되었다. 호랑이가 말을 잡으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말과 함께 달리기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말의 등에 올라탄다. 말은 두려워서 달리기가 점점 빨라진다. 만약 말 달리기가 느리면 호랑이는 꼬리로 쳐서 이를 달리다가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기에 이른 다음에야 말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맹수라 해도 처음부터 잡아먹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예조치(蝦夷地)에서 곰이 말을 잡을 때는 아예 덤벼들어 삐걱삐걱 말다리를 부러뜨려 어깨에 지고 떠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곰의 용맹은 호랑이보다 강하다고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 가 잠시 만지작거리며 사람의 정기(精氣)를 빼앗고 그 후에 잡아먹는다
- 22) 동래군(東萊郡) 대기(大崎)라는 마을의 산골짜기에 고부(嫁姑)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시어머니를 물고 가는 것을 며느리가 매달려서 구해 낸다
 - 23) 이선달(李先達)이 평안도 평양 자모산(慈母山)을 지나가다가 비녀가 입에 꽂혀 고통받는 호랑이를 구한다
 - 24) 평안도 땅에 김성태(金成太)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와 열 살 된 한 아이를 데리고 경상도 울산(蔚山)으로 향할 때 조령(鳥嶺)에서 호랑이가 출몰한다. 부모 자식 셋이 나부터 잡아먹으라고 울부짖는 것을 보고 호랑이도 호랑이도 보다 못해 이를 놓친다
 - 25)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는 500푼씩 포상이 주어진다
 - 26) 호랑이를 열두세 아동이 잡은 적이 있다
 - 27) 호랑이도 귀가 있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28) 충청도 단양(丹陽)의 백성이 호랑이에게 습격당했을 때 소가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구한다
 - 29) 호랑이도 사람으로 둔갑한 적이 있다
 - 30) 호랑이를 해동청(海東靑)이라는 매가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 31) 강원도 평창(平昌)에서 주인과 종자가 수박을 대신으로 하여 호랑이로부터 도망친다
 - 32) 경상도 동래군(東萊郡)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魚寺)에 힘이 센 중이 있어 호랑이 꼬리를 잡아 뜯었다
 - 33) 서울 근교 경승지에서 호랑이가 사랑의 도피를 한 남녀의 여자를 잡는다
 - 34) 경상도 김해(金海)에서 마누라가 받은 억울한 의심을 호랑이가 당일에 씻는다
 - 35) 메이와(明和) 6년 3월 23일에 왜관 나카야마(中山)에 호랑이 두 마리가 출몰한 이야기²²⁾

모두 조선의 문화와 풍속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오랜 세월이 걸쳐서 일조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오다 이쿠고로였어야 수집할 수 있었던 호랑이 이야기라 하겠다.

본서 「호설(虎說)」은 이후 일본의 조선어 통사들에게 많이 읽혔던 것으로 보이며, 에도 후기에서 메이지 초기에 성립된 조선어학서에는 이 책의 영

22) 이 이야기는 이른바 「갓고지쓰로쿠(獲虎實錄)」로서 잘 알려진 왜관 호랑이 퇴치 이야기이다. 다만 왜관에서 호랑이 퇴치가 있었던 것은 명화(明和) 8년(1771) 3월 23일의 일로 명화 6년은 아니다. 「와칸칸슈닛가(倭館館守日記)」 명화 8년(1771) 3월 23일 조, 「갓고지쓰로쿠(獲虎實錄)」(對馬博物館 소장 對馬宗家文書, [記錄類3: 朝鮮關係: B19]) 등을 참조.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하 이러한 본서가 조선 어학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호랑이의 위세에 놀려서 여우는 적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이 드물다
이 책의 제6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虎の威に犯され 狐少ふして人を迷わす事稀なり 羊豕を飼ふに 油断有れば 構に入て捕事多し 猿住事能わず 此節北京より調へ来て見世物にすと語る

(호랑이의 위세에 놀려서 여우는 적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이 드물다. 양이나 돼지를 키울 때 방심하면 구내에 들어와서 잡는 경우가 많다. 원숭이는 살 수 없지만 요즘은 북경에서 사와서 구경거리로 삼는다고 한다.)

「호설」의 이 부분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사쓰마(薩摩) 나에시로가와(苗代川)에서 1836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조선어학서 「표민대화(漂民對話)」에 나타난다. 애스턴문고본 중권 23b에

여○ 山獺도 應當 이실 듯 시브온디 사름을 홀릴 일은 업습나
狐たぬきも きはめて をらふとをもひますが 人を化すことはござらんか
그 놈들은 사름을 홀릴 놈인 줄은 넷말의 잇습고 잇다감 보기는 보오되 盡時
我國 사름을 홀리단 말은 아직 못 드릇습니 그는 언던고 흐면 우리나라흔 허
랑이 만스오매 그 놈들도 저의 저히고 잇는 타스로 術 내치 못흐는가 시브단
所聞을 흐습니

あやつともは 人を化すものと申訳は 昔がたりにござりまし をりにふれ
見ることはみますれとも 終に我國の人を化したと云ふことは いまだ承りませぬ
それはどうかと申せば わが國は 虎が多ふござります故 あやつとも
も かれに をそれて をるゆへで わざをだしへぬであらふと申説をいたしまする

라고 하였다.

(2)산천(山川)에 대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 책의 제16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虎数百年を経て白虎と成り 人を害せず 是が為^{ホコロ}に祠を建て 近里の者春秋に祭り 靈なる事多しと語る

解く 朝鮮国に大社なし 天を祈り住所の山川を祈る 爰に和館の前五六丁にして牧^{マキ}の嶋と云ふ有り 則牧有り 朝鮮の名号絶影嶋と云ふ 凡周り六七里村なし 此嶋に朝比奈大明神の祠有て 朝鮮人時々祭をする (호랑이는 수백 년이 지나 백호가 되어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사당을 짓고 인근 마을 사람들이 춘추에 제사를 지낸다. 영묘한 일이 많다고 한다.

해설: 조선국에 대사는 없다. 하늘에 대하여 제가를 지내고 사는 곳의 산천에 대하여 제사를 지낸다. 여기 왜관 앞 오륙정 자리에 마키노시마(牧^{マキ}의嶋)라는 곳이 있다. 즉 목장이 있고 조선의 명호로는 절영도(絶影嶋)라고 한다. 대체로 주위는 6, 7리로 마을은 없다. 이 섬에 아사히나대명신(朝比奈大明神)의 사당이 있어 조선인들이 때때로 제사를 지낸다.)

「호설」의 이 부분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표민대화(漂民對話)」에 나타난다. 즉 애스턴문고본 중권 55b에

朝鮮도 山川의 祭하는 일이 잇습는가

朝鮮も 山川にまつり 하는 것이 가오리까

우리 나라흔 日本처로 神堂을 祭하는 일은 업고 다 名山 大川을 祭하는 法이 올시

わが国は日本のやうに神社をまつりすることはなく 皆名山大川をまつり 하는 법でござります

라고 하였다.

(3)수리와 매의 혼혈

이 책의 제30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虎を海東青と云ふ鷹 捕りたるとの嘶あり 灰を羽の間」に付け運び来り 虎の臥たる上をまひ 近く乗廻るを 虎仰ひて是を見る時 頻^{シキリ}りに灰を振り掛ける事数度 終に虎の眼に入れ 苦む状を見すたして 眼^ケを蹴て執りたるとの

說有りと語る

解く 海東青ハ 鴨綠江の辺ニテ 鷲とひさご²³⁾と番て産たるよし 今名ばかりニテ此種有を聞かす 朝鮮ハ鷹宜キ地ニ而 北京の方ニテ子を産ミ在りたるを待て 黄海道の康翎に渡し来り 種類の鷹 中小もよキと聞く (호랑이를 해동청이라는 매가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재를 날개 사이에 붙이고 옮겨와 호랑이가 누워 있는 위를 날고 가까이 날아다니는 것을 호랑이가 우러러 보고 이를 볼 때 자꾸 재를 뿌리는 일이 몇 번, 마침내 호랑이의 눈에 들어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차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해설: 해동청은 압록강 근처에서 수리와 비사고(히사고)가 흘레하여 낳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이름만 전해지고 이 씨앗이 있다는 것을 듣지 않는다. 조선은 매가 좋은 땅으로 북경 쪽에서 새끼를 낳기를 기다렸다가 황해도 강령(康翎) 땅에 보내온다. 이 종류의 매는 중소 크기의 것도 좋다고 들었다.)

「호설」의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부연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표민 대화(漂民對話)」에 나타난다. 즉 애스턴문고본 중권 60a에

義州의 큰 소나무가 이셔 그 솔가지에 수리매라 훈 새가 깃드려 잇단 말을 三十七八年前의 對馬州의 사던 사름의 즈도 相對하여 情談 굿디 드룻드니 정 말이옵나 알게 호소

義州に大ひ松の木があつて その松の枝にびしゃと云ふ鳥が巢をかけてをると云ふ訳を 三十七八年前に對馬州出生の人に ふとたいめんして 情談のはしにきゝましたが じつじゃうて ござるか しらさっしゃれい

우리나라 먼 디 일머자 아라 계시기는 果然 神通하여 호옵니 맞치 니르신 대로 義州의 大松木 이셔 수리매 깃드려 잇단 말을 이 앓 우리 咸鏡道 洪源이라 훈 곳의 黄大口[황대구] 사노라 호고 가는 대 平安道 龍川이라 훈 곳의 商賈의 만나 보고 누누히 사피다가 말슴 中の 드룻습드니 곳 호신 말슴의 죠곰도 다르지 아니호옵니

わが国遠方のことまでごぞんじなされてござって まことにかんしんいたしましてござる 丁どをせのとをり 義州に大松木ござって ひじゃ巢をかけてをると云ふことは このまへ私咸鏡道洪源と申所に き鱈をかいたうをもふて

23) 새 이름, 물수리. 미사고(ミサゴ). 지방명으로서 비사고(ビスゴ), 비샤고(ビシャゴ), 비샤(ビシャ) 등이라고도 함.

まいった時 平安道竜川と申所の商人にあふて をりゝゝまじはってものがたりの内に承りましたが 則ちをはなしにすこしもちがうことはござりませぬ
그 새는 수리과 매 두 새 일흠을 브르셔 異常호는디 엇던 새라 호는가 크기는 매예서 크다 호읍든가 저그다 호읍든가 仔細히 듯고져 호외
その鳥はわしと鷹二羽ぶんの名をよんで ふしんにござるが どをした鳥と云ひましたか 大さは鷹より大ひと云ひましたか 小いと云ひましたか くはしうきゝたうござる

疑心호시기는 괴이치 아니호읍니 그 새 元來도 지낸 적 드럿습든니 매과 수리가 홀리다가 나흔 샷기가 수리매 根本인가 시브읍고 그러므로 두 새 일흠을 붓쳐 브르다 호읍고 크기는 매보다가 죠곰 크고 수리예서 저근 새라 호읍데이다

을うたがいほご尤でござりまする かの鳥のゆらいも先頃承りましたに たかと驚がつるんで うんだ子がびしゃの根本さうにござります そこを以て二羽ぶんの名をつけよぶと申し 大さはたかよりすこし大く わしよりは小い鳥と申ました

그 새는 물속의 노는 고기 잡아먹고 그 잡을 지조가 妙호다 호읍고 쏘흔 수리매 식혜란 말도 드럿스오나 実生이 아지 못호온디 자니는 親히 그 새 호는 양을 보든 사름의 만나 말숨을 듯줍거든 仔細히 알고 잇습는 듯 斟酌호오니 듯습는 대로 한번 니르 보소

その鳥は水中にをよぐ魚をとってくひ そのとるわざがきみゃうにあると云ひまし さて又ひじゃのすしと云ふこともきゝましたれとも じつい がてんがゆきませぬが こなたは直にその 鳥のしわざをみた人にあうて はなしをきかれたらほ くはしうしてをられふとすいさつするにより きひてござるとをり 一ととをり云ふてみさしゃれ

수리매 말숨을 드럿던 대로 니르 보라 호시니 호여 보오리 저 새는 호시는 드시 물 속의 노는 고기 잡은디 千의 현나도 그럿잡을 적이 업고 그 지조는 매보다가 낮은 듯 뵈고 식혜란 말도 괴이치 아닌 말이 잇습고 그 호는 양을 잡은 고기를 썩는 아니 먹고 저 소나모 아리 그들의 모화 낫고 제 오좁을 누어 두다가 이윽호여 먹는가 시브읍고 곳 그를 수리매 식혜라 그 다히셔도 니르다 호읍데이다

ひしゃのはなしをきひてをる通り云ふて見よと をゝせられるにより 申てみましゃう かの 鳥は仰のどをり 水の中にをよぐ魚をとる処 千に一つもとりあやまることはなく そのわざは 鷹よりもまさったやうにみへ すしと申こともふしぎならぬことござりまする そのしわざはとった魚をじきにはく

はず かの松の下日かげにあつめをき をのれが小便をしかけて しばらくしてくうさうにござりまする 則ちそれをびしゃのすしとあのあたりにても云ふと申ました

라고 하였다. 「호설(虎說)」에서는 「해동청(海東靑)=수리와 비사고(ひさご)의 혼혈」, 「표민대화(漂民對話)」에서는 「비사고(ひさご)=수리과 매의 혼혈」로 되어 있어서 약간 어긋나기는 하지만 「표민대화」의 위의 문장은 「호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표민대화」의 위의 문장의 뒷부분은 당시 일본에서 유포되던 이른바 미사고초밥(ミサゴ鮓) 이야기를 도입한 것이다. 미사고가 잡은 물고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물고기가 저절로 발효되어 초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책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에도 후기의 본초학자(本草學者) 오노란잔(小野欄山)의 「혼조코모쿠케이모(本草綱目啓蒙)」에는

鶚 ^{ミサゴ}水沙兒(万葉集) ^{カクガノ}覺賀鳥(日本景行天皇紀) ^{ミナコサコドリ}ミナコサコドリ(秘藏書) ^{ミシヤゴ}미시야고 ^{ビシヤコ}비시야코(雲州) ^{ビシヤ}비시야(參州) ^{ヒサゴ}히사고(江州) ^{ウヲダカ}우와다카 [一名] [鶯鳥](通雅) ^{海鶯}해鶯(福州府志)

水辺ニ多シ。形鶯ニ似テ、大ニ、高ク翔ル。鳴声モ鶯ニ似タリ。水上ヲ高ク旋飛スレバ、魚ソノ影ニ驚キ走り水面ニ浮ブヲ見テ下リ攫捉。(中略)又深山巖陰ニ魚ヲ多ク積重ネ置ヲ、ミサゴノスシト云。是、冬ノ貯ヘナリ。人コレヲ取ニ、重ネタル下ノ魚ヲ取バ、追追新ニ魚ヲ含来リテ積重ヌ。若積タル上ノ魚ヲ取バ再ビ含来ラズ。又樹枝ノ繁茂シタル処ニ柴ヲ襯シ、ソノ上ニ魚ヲ積重ヌルモアリ。此等ノ鮓已ニ久クナリタルモ腐ラズ。人取テ賞食ス。²⁴⁾

(물가에 많다. 모양은 솔개를 닮았고 매우 높이 난다. 울음소리도 솔개를 닮았다. 물 위를 높이 날아다니면 물고기는 그 그림자에 놀라 달아나 수면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내려가서 잡는다. (중략) 또 깊은 산의 바위 그늘에 물고기를 많이 쌓아 놓은 것을 미사고초밥이라고 한다. 이것은 겨울의 저장물이다. 사람이 이것을 잡을 때 겹친 아래의 물고기를 잡으면, 계속해서 새로 물고기를 물고 와서 쌓는다. 만약 쌓아 올린 위의 물고기를 잡으면 다시 물고 오는 일이 없다. 또한 나뭇가지가 무성한 곳에 시목을 깔고 그 위에 물고기를 쌓아 놓은 것도 있다. 이 초밥은 이미 오래 지나도 썩지 않는다. 사람이 따서 맛본다.)

24) 平凡社刊『本草綱目啓蒙 4』(東洋文庫552) p.44.

라고 하였으며, 또한 에도시대 후기 히젠국(肥前国) 히라도번(平戸藩) 제9대 번주 마쓰라 기요시(松浦清)가 저술한 수필집 「갓시야와(甲子夜話)」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²⁵⁾. 「표민대화」는 이것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4)가죽자루를 큰 나뭇가지에 걸고 그 안에 들어가 잔다
이 책의 제19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白頭山の近邑に山水甲山江界と云ふ所より上〃人蔘を採出^{ホリ}すに 虎の患多
き故 或は五人八人ツ、連立 数日山に籠^{コモ}り 夜ハ皮の袋を大木の枝に掛け
其内^{シノビ}に入て寝る 近年此辺の深山に女眞の者忍入て山を荒す事甚し 是に仍て
北京に訴^{ウツス}へ 彼是重き約条有りと語る

解く 今北京の皇帝ハ女眞の寧古塔より出られ候故 女眞の者驕^{オゴリ}り強く
時〃約を犯^{ヲカシ}し 北の方朝鮮の山海をたく事 今有りと聞く 但 女眞を女直と
云有り 女直ハ非也

(백두산 근처에 있는 삼수, 갑산, 강계라는 곳에서 극상품 인삼을 채취할 때 호랑이 걱정이 있어서 혹은 대여섯 명씩 데리고 며칠 산에 머물고 밤에는 가죽자루를 큰 나뭇가지에 걸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잔다. 최근에 이 근처 심산에 여진인이 몰래 들어와 산을 헤집고 다니는 일이 심하다. 이에 북경에 호소하여 피차간의 엄중한 약조가 있다고 한다.

해설: 지금 북경 황제는 여진의 Ningguta 출신이라 여진인은 교만하고 가끔 약조를 어겨 북쪽 조선의 산해를 집적거리는 일이 지금은 있다고 들었다. 단 여진을 여직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직은 잘못이다.)

「호설」의 이 부분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메이지시대 초기에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郎)가 부산 초량(草梁) 어학소에서 조선어를 공부했을 때 만든 학습장인 「복문록(復文録)」에 나타난다. 즉 「복문록(復文録)」 권1의 53b[제105조; 1874년 11월 5일조]에

25) 平凡社刊『甲子夜話2』(東洋文庫314) p.238.

同五日

秋節이 되면 滿州 사름들은 北出의 汲픈 산의 드러(1,53b)가며 열흘날 或 스므날 滯留하여 山蔘을 枓가느디[←뵤다][蔘採하다 하느디[←하옵니]] 하느니라 其間 飲[←之]食은 묵은 밥을 持來하다 하며 밤은 엇던 고디 站하느뇨 하느니 淸싱[+의] 해로오믈[←몹기]를 汲피 싱각하여[深慮하여] 牛皮로 하여 밍긴 큰 주머니를[/자리[←로]] 나모가지에 드라주고 [+寢房 삼아] 其中의 드러 [+두어] 찬[←참]다[←다] 하옵니 어는 ㅈ[←一日은] 이 놉을 잡으라 하다가[←하고] 彼此 大端히 사홈하는 일도 잇다 하옵니

秋氣になれば 滿州の人共は北土之深山に入て 十日或は二十日滞りて 山参を採ると云 其間の飲食は乾かしたる飯を持来ると云 夜陰は何れの処に宿とるならんと問へば 獸もの害を深く慮りて 牛皮を以て造たる大なる袋を樹木の枝に掛け 寢房とし 其中に入て寐ると申候 或とき 此漢を捕えんと彼此大ひに戦之事もあると云

라고 하였다. 이로써 메이지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호설」이 조선어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읽혔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 오우라케(大浦家) 쓰시마가기야역사관(対馬鍵屋歴史館)에 소장된 오다이쿠고로편 「호설(虎說)」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후대의 조선어학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실례를 제시하면서 논해 왔다. 앞으로 이 귀중한 자료가 일조관계사나 조선어학사 등의 연구에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

<参考文献>

- 泉澄一・中村幸彦・水田紀久編(1982) 『芳洲外交関係資料集』(雨森芳洲全書3)関西大学出版部
沖縄県立図書館史料編纂室編(1987) 『沖縄県史料(前近代5)漂着関係記録』沖縄県教育委員会
長正統(1978) 「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95-131. 九州大学文学部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 4』 1992年 平凡社刊 (東洋文庫552)
岸田文隆(2009) 「『隣語大方』の淵源：『朝鮮語訳』と『韓讀集要』」, 第1回譯學書學會創立總會 및 學術會議 予稿集, 72-84. 又石大学校
岸田文隆(2010) 「朝・日語学書『隣語大方』の淵源」, 李東哲編『日本語言文化研究』, 65-72. 延辺大学出版社
岸田文隆(2014) 「対馬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類の解説作業について」 『국어사연구』18, 161-191. 국어사학회
岸田文隆(2015a) 「対馬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類について一報告書の刊行を契機として一」 『朝鮮学报』 237, 1-63. 朝鮮学会
岸田文隆(2015b) 「대마도(對馬島) 종가문서 (宗家文書)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韓國学研究論文

- 集』4, 1-20. 中国文化大学韓国語文学系出版
- 岸田文隆(2016) 「대마도(對馬島) 종가문서 (宗家文書)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語文学論叢』 35, 1-19. 国民大学校語文学研究所
- 岸田文隆(2022) 『鍵屋歴史館所蔵 朝鮮語大通詞小田幾五郎編 虎説 : 解題・翻刻・現代語訳』 対馬鍵屋歴史館
- 岸田文隆(2023a) 「鍵屋歴史館所蔵「書状集」について - 薩摩苗代川伝来朝鮮語学書「韓牘集要」との比較-」 『譯學과 譯學書』 10
- 岸田文隆(2023b) 「対馬鍵屋歴史館所蔵ハングル書簡集「片紙集」の成立年について」 『ユーラシア諸言語の動態 IV - 言語接触・混成言語・言語生態-』 (Dynamics in Eurasian Languages IV - Language Contact, Mixed Language and Linguistic Ecology -) 神戸市看護大学人間科学領域
-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考える会(2002) 『歩いて知る朝鮮と日本の歴史 九州のなかの朝鮮』 明石書店
- 金文姫(2017) 「韓語覚書」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 - 子音について -」 『大阪学院大学外国語論集』 73, 23-47. 大阪学院大学外国語学会
- 金文姫(2018) 「韓牘集要」と「隣語大方」 『日本語文學』 77, 213-237. 한국일본어문학회
- 酒井雅代(2015) 「近世後期対馬藩の朝鮮通詞」 『日韓相互認識』 6, 33-73.
- 酒井雅代(2018) 「朝鮮信使易地聘礼交渉の頓挫と再開 : 朝鮮通詞と倭学訳官の交流を中心に」 『日韓相互認識』 8
- 酒井雅代(2021) 『近世日朝関係と対馬藩』 吉川弘文館
- 志部昭平(1988) 「陰徳記 高麗詞之事について -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仮名書き朝鮮語資料 -」, 『朝鮮学報』 128, 天理 : 朝鮮学会
- 田代和生(2007) 『日朝交易と対馬藩』 創文社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09) 『対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目録』(1)~(3) 長崎県教育委員会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2)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 長崎県教育委員会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 『対馬宗家文庫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 長崎県教育委員会
- 中村幸彦・中野三敏校訂 『甲子夜話 2』 1977年 平凡社刊 (東洋文庫314)
- 松原孝俊・岸田文隆・北川英一・許秀美・金京美・金周弼・金徳珍・金東哲・権洙用・黄文煥・小西敏夫・酒井裕美・酒井雅代・趙垺熙・鄭丞惠・中野等・藤川貴仁・古川祐貴・朴真完・山口華代・横山恭子・四辻義仁・梁興淑(2018) 『朝鮮通信使易地聘礼交渉の舞台裏 - 対馬宗家文庫ハングル書簡から読み解く』(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叢書3) 九州大学出版会
- 허지은(2012)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